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노동시민사회장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우리 건설노동자는 80년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힘든 일 하면서 천대받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 양회동 열사의 유서 중에서

영원한 건설노동자

상회동



노동시민사회장

■ 장례 일정

- | | |
|-----------|------------------------|
| 6월 21일(수) | 08시 발인 미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 | 09시 발인 및 운구행진 (~경찰청) |
| | 11시 노제 (경찰청) |
| | 11시 30분 운구행진 (~세종대로) |
| | 13시 영결식 (세종대로) |
| | 16시 하관식 (마석 모란공원) |



■ 영결식

6월 21일(수) 오후 1시 | 세종대로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약력 보고	건설노조
조사 1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조사 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조가	꽃다지
조사 3	공동장례위원장 (6개 정당 대표)
조사 4	함세웅 신부
영상	편지 글
추모의 춤	이삼헌 한국민족춤협회
유족 인사	유가족
호상 인사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헌화	참가자 일동

영원한 건설노동자

상회동



열사가 걸어온 길

- | | |
|-------------|--|
| 1973년 | 강원도 고성에서 2남 4녀중 막내로 출생
(속초에 거주하면서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명) |
| 2015년 | 건설현장 철근노동자로 근무 |
| 2019년 11월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가입
(일반팀 철근팀장으로 일하다 임금중간착취, 임금체불, 고용불안 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가입) |
| 2022년 1월 |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역임 |
| 2023년 5월 1일 |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
유서 3부(가족, 노동조합, 원내 야4당)작성 |
| 2023년 5월 2일 | 13시 운명 |



권두시

윤석광 조합원 |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1.

울어라 세상아!

어찌하여 살을 태우는 아픔이
세상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는가
살 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가?

당신의 품 안에 품고 있던 열정은
오월의 하늘을 붉게 태웠습니다
끝없이 몰아치는 탄압 앞에
모든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스스로를 불지른 열사님입니다

실낱처럼 살아가는 하루살이
삶마저 이어나가기 힘들어 꿈이
무너져가는 동지들을 바라보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분노이며
피 토하는 심장을 불질렀습니다

결코 불의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은 아픔을 찢어버리고
소리 없는 아우성에 뜨거운
깃발 꽃고 피눈물을 태웠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동지들은 어떡하라고
혼자서 해결하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리도
무참하게 동지 위해 바치십니까?

2.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더 커가는
반발력의 스프링처럼 패배감을
억누르고 차오르는 울분을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한 땀혀 타들어가는 아픈 육신
탄압에 시들어가는 병든 정신
무너져내리는 서민들의 삶
모든 것을 대변한 마지막 불꽃을

하늘이시여!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이리도 애타게 애원하는 열사의
분신을 모른척하신단 말입니까?

신문고는 무엇을 하는가?
북을 치고 피눈물을 쏟아라!
이 땅에 민주주의가 시들어
무궁화 꽃이 하나둘씩 떨어진다!



3.

열사가 토해낸 붉은 핏물에
우리 모두 몸을 적시고 저 감옥
없는 창살을 부수어 버리자!
불꽃으로 되찾자 줄속의 자유를

열사님은 외쳤다
현장에서 죽어가는 동지들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한 사람 국민의 외침이 거둬지고
모든 노동자의 바람인데도
세월이 흘러가도 제자리에
우뚝 선 외침은 망부석이었다

들리지 않는가!
양심에 털 난 배신한 머슴들아!
누가 국가의 주인인지 모르는가?
뜨겁게 태워버린 님의 목소리를

4.

너희들 앞에 타들어간 죽음을
가지고 유서 조작설까지 난무.
하지 마라!

너희가 맞는다고 너도 분신해라
그리할 자신도 없는 존재들이

이제 우리 모두는 당신의 주검을
골고루 나누어 먹으려 합니다
털 끝에서부터 마지막 먼지에
묻은 재 하나까지 진심으로.....

하늘아! 문 열어 드러라!
은하수 계곡에 뜨겁게 탄 영혼을
시원한 곳으로 모셔다오
사계절 별꽃이 피는 안식처로.....

이제 나머지 일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할 일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
놓으시고 영면하시길 빕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조사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동지여!

양회동 동지여!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동지여!
건설노동자의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해
한목숨 바치신 양회동 동지여!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한 것 뿐인데 윤석열 검사독재 정치에 제물이 되어” “억울하고 창피합니다.”라며, 건설노동자 자존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에 나서신 양회동 동지여!

이 억울한 죽음은 건설자본의 앞잡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조중동 등 수구적폐 언론, 그리고 경찰, 검찰 등이 합작해 만들어 낸 사회적 타살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모욕하면서 “건폭몰이” 등 마녀사냥식 탄압을 몰아치는 잔인한 탄압에 저항하여 건설노동자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이기도 합니다.

양회동 동지가 목숨바쳐 헌신한 전국건설노조가 과연 건폭 집단
입니까?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 건설현장에 실로 엄청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온,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조직입니까?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계약체계 속에서 오야지, 십장이 설치하는 전
근대적 건설현장을 변화시켜 중간착취 없는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온 것이 전국건설노조가 아닙니까?

작년 한해만 해도 모두 341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하
는, 거의 하루에 한명 가깝게 산재사망하는, 죽음의 전장터같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시공과 안전작업이라는 변화를 추동해 온 것
이 전국건설노조 아닙니까?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무료 취업알선센터, 건설기능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건설 현장의 고용구조 투명화, 합리화를 추진해 온
주체가 바로 전국건설노조가 아닙니까?

그리하여 날품팔이나 노가다라는 멸칭으로 마치 막장처럼 하대
되어 왔던 건설현장을, 젊은 사람도 희망을 갖고 기능을 습득하
며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변화·발전시켜 온 주체가 바로 전국건설
노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건설노조 조합원과 철근콘크리트업체 등 전문
건설업체 간에 시공팀 단위의 직접고용구조가 만들어지고 전국
적인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도 8시간 노동체제로 변화를 이뤘습니다. 적어도 전국건설노조
조합원이 투입된 현장에서는 부실시공이나 부정부패가 근절되
고 안전 작업이 정착되면서,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점차 건설 현장에 매년 임금인
상이나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생기며, 젊은 사람

들도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로 변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나 사회가 전국건설노조의 활동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건폭이라니요? 도대체 언론들이 입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이렇게 공익에 합치되는 조폭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건설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우선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지극히 헌법적이고 합법적인 정당행위입니다. 심지어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첨단화되어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실정법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또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건설노동자의 고용형태상 특성을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 노조활동을 위한 타임오프 제도를 건설현장의 실태에 맞게 구체화하여 노조 전임비를 지급받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지극히 합법적인 노조활동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공갈이니 업무방해니 하면서 구속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나라 헌법이고 어느나라 실정법입니까?

만약에라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이 성공하게 된다면, 건설 현장은 건설자본의 숙원인 ‘건설노조 없던 시절’로 회귀하고 말 것입니다. 또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체제 아래 시공 능력 경쟁이 아니라 인건비 후려치기식 경쟁이 난무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실시공과 위험작업이 더욱 일반화되고, ‘건축물 시공품질 향상’과 ‘건설 현장 산재사고 감소’라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비원(悲願)도 영영 실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 되면 고용불안과 중간착취, 임금체불이 난무하는 전근대적 막장 노동현장으로 되돌

아가면서, 결국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나쁜 일자리’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전국건설노조를 통해 고용안정과 건설안전 실현 투쟁에 나서는 것은 한편으로는 건설노동자들의 권리 쟁취 투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공익을 실현하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고 양회동 동지의 억울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건설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사회각계 시민·민중들과 양심세력들이 함께 나서는 거대한 사회연대투쟁을 통해 함께 승리하고, 그리하여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힘과 정성을 모아 나갑시다. 살아서 함께 싸웁시다.

끝끝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동지여!

이 땅에서의 고단하셨던 온갖 헌신 모두 내려 놓으시고, 이제는 고용불안과 산재사망, 또 중간착취와 임금체불도 없는, 그리고 부당한 건폭몰이와 마녀사냥도 없는 저 세상에서, 부디 편안히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남은 우리들이 동지의 간절한 염원을 기필코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조사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양회동 동지의 자라났던 건설노조를 지키기 위해,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에 함께 맞서기 위해, 양회동 동지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회동 동지는 자신과 동지들의 삶을 위해 노동조합에 자신의 생을 걸었습니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해야 하는 현장,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현장, 임금을 떼이고 희망이라곤 찾을 수 없는 막장같은 현장을 사람답게 사는 현장으로 바꾸자고자 노동조합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민주노총은 건설노조는 자라났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자신은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도, 조합원들의 고용이 행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혹한 건설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노동조합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복이자 자부심이었던 조합원들의 고용은 정권에 의해 공갈로 협박으로 매도당하고 짓밟혔습니다. 희망을 찾아 동분서주하던 그의 발걸음은 자본의 이윤 앞에 생을 마감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양회동 동지는

우리에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의 자존을 지킬 수 없다고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건설노조 탄압에 특진을 걸고 사냥하던 경찰이 이제는 집회결사의 자유마저 특진을 걸고 사냥하는 지경입니다. 건설노조, 민주노조를 지켜내지 못하면 이 사회 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들의 탄압에 한걸음도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수많은 민중의 피와 희생으로 얼룩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노동자들의 헌신과 절규로 만들어진 노동자의 권리가 파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속되는 한 노동자 민중은 더 많은 피를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제2의 양회동, 제3의 양회동을 찾아 지금 이시간에도 탐욕의 이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를 지키기 위해 싸웁시다. 노동자 민중을 지키기 위해 투쟁합시다. 또다른 희생을 마주할 끔찍한 순간은 상상조차 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에 나섭시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양회동 동지는 알려주었습니다. 동지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겠노라 너나없이 나섰습니다. 양회동 동지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양회동이 옳고, 윤석열이 틀렸다고 증명합시다. 윤석열 정권을 끝내는 것에 멈추지 말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갑시다.

양회동 동지, 죄송합니다.

더 빨리 투쟁에 나서지 못해 동지를 잃었습니다.

더 치열하게 싸우지 못해 동지의 영전 앞에 저들을 무릎꿇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건설노조답게 투쟁하겠습니다. 동지의 자
랑이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겠습니다.

부디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상회동 조사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故양회동 열사께서 삶을 등진 지 51일째 되는 날입니다.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고 집시법 위반도 아닌데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합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토끼몰이 처럼 자행된 정권의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열사는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 이자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이 정권은 일말의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권의 비정한 인면수심에 분노를 느낍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분야처럼 노동현실도 지난 1년 동안 끝없는 퇴행을 겪었습니다.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건폭’으로 몰렸습니다. 심지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처럼 정권은 한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거짓으로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정부가 말하는 ‘우리 국민’에 노동자와 노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도 정부가 하늘처럼 받들고 지켜야 할 국민입니다. 국민의 정당한 노동권을 부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대통령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고, 동지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던 사람, 양회동 열사를 기억합니다.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향한 열사의 꿈을 저희가 잇겠습니다. 열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곳에서 편히 쉬소서.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조사

이정미 | 정의당 대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 현장 동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싸운 건설노동자. 양회동 지회장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신지 오늘로 53일이 지났습니다.

양회동 지회장님의 죽음은 시작도, 끝도 아닙니다.

일터에서, 공장에서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와 국가의 부재 속에서 참극을 당한 159명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정부의 외면 속에 목숨을 포기해야만 했던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너무도 많은 불행이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덮치고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양회동 지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정권은 눈에 불을 켜고 다 음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건폭, 노폭 물이로도 모자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죽음을 방치한 파렴치범으로 건설노조를 몰고 갔습니다. 공적 권력으로서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한마디 사과를 바란 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파렴치한 말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쏟아내며 양회동을 두 번 죽이려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노동계약과 노조 탄압을 휘두르며 일하는 국민과 전쟁이라도 치르자는 무도한 권력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 시민들의 삶은 계속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할 법치를, 약자에게 망치처럼 내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손잡고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패륜을 일삼는 원희룡 장관은 즉각 사퇴하시오, 더 크게 외칩시다. 노동 탄압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고인의 영전에 눈물 대신 더 크게 다짐합시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었던 그의 영정 앞에 놓인 오늘의 한송이 국화는 내일의 노동 존중 사회에 환한 들꽃으로 피어나게 만듭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조사

용혜인 |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께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야 했던 그 날로부터 50일이 넘게 흘렀습니다.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고인의 말을 여전히 잊을 수 없어 마음 한 켠이 날카롭게 아립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이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 앞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고인의 유가족이 직접 참관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분신방조, 유서대필’을 운운하며 또다시 고인의 명예를 처참히 훼손했습니다.

경찰조차 분신방조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고, 조선일보의 유서대필 보도 또한 조작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이 정권은 어떻게든 노동자를 악마화하기 위해 후안무치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토끼몰이식 압박수사로 평범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만행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잔혹해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은 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이 새로운 저항의 불씨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인이 야당 대표들에게 전한 유서에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겠냐.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리 달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정권의 몰락을 바라야 하는 이 비극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만 합니까.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윤석열 대통령 단 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모래성이 아닙니다. 숭한 노동열사들의 죽음과 ‘이윤보다 인간’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는 이러한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의지가 세상에 관철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기어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이기고 말 것임을 자신합니다. 고 양희동 열사, 그리고 수많은 노동열사가 남긴 뜻을 더 단단한 단결로, 더 넓은 연대로 받아안으며 그들이 삶으로 남긴 유지를 받들어나간다면 말입니다.

영결식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지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영결식은 쉬어야 할 이는 떠나보내지만 그 뜻만은 결코 떠나보낼 수 없다고 여기 모인 우리가 함께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고인의 뜻대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폭주를 막고 이 파렴치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고 양회동 열사가 남겼던 소원,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 했던” 사람들의 존엄과 자부심만은 지켜달라던 그 애뜻한 소원을 기본소득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깊게 되새기겠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동료들을 걱정하며 그 누구도 무고하게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그의 마지막 “희망”에 반드시 답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무겁게 드립니다.

여기 계신 야당의 대표님들께서도 그 뜻을 함께 받아 안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로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 폭주에 언제나 물러섬 없이 최선을 다해 맞서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통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의 소임을 끈질기게 다해낼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 번 고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그 어떤 고통도 빈민도 없이, 오롯한 안식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상회동 조사

윤희숙 | 진보당 상임대표

이 정권 들어 너무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지하철역에서, 이태원에서, 또 전세사기로, 그리고 억울한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놓았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이, 그리고 그 피눈물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저 많은 건물은 건설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세운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실도, 공관도, 자택도 모두 건설노동자들이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건설노동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는 여전히 산업 재해가 가장 많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며, 임금을 떼이고 있습니다. 이 부당함과 싸우기 위해 만든 것이 건설노조입니다. 불법이 판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자본과 싸워 노동자의 생명과 고용을 지킨 것이 바로 건설노조입니다.

제대로 된 정부와 경찰이라면 건설자본의 불법으로 부터 건설노동자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과 경찰은 건설자본의 편

이 되어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매도하고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특진을 내걸고, 천 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을 소환하는 역사상 유례 없는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고살기위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여름 피약별, 한겨울 혹한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사람들이 왜 나쁜사람, 범죄자 누명을 써야 합니까. 양회동 열사가 유서에 한 자 한 자 적은 비통함, 억울함, 분노를 진보당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양회동 열사가 야4당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진보당은 오늘 현실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을 키워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만든 당입니다. 그래서 양회동 열사의 유언은 진보당의 사명입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진보당은 건설노동자와 건설노조를 지켜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이길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양회동과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었던 국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바랬던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양회동 열사와 같이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그길에 양회동 열사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투쟁!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조사

나도원·이종회 | 노동당 공동대표

간절히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언젠가 ‘철탑’에 올랐던 동지들, ‘망루’에 올랐던 동지들, ‘들판’에 섰던 동지들, 그리고 양회동 동지여, 안녕하십니까? 이 멋진 신세계, 21세기에도 열사의 탄생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도 철창 안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부조리로 가득한 건설 현장을 바꿔온 것은, 건설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은 국토교통부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입니까, 경찰청입니까? 아닙니다.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정권은 그런 사람들을 온갖 억지 혐의를 끌어모아 나이 든 어머니, 이제 겨우 열 살 된 딸, 거동조차 불편한 가족과 떼어놓고 있습니다.

모래성은 짧은 시간 동안 높이 쌓아 올릴 수는 있어도, 역시 짧은 시간 동안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불평등 심화를 비롯한 전 사회적 위기에 해답을 내놓기는커녕 한층 심화시키는 정권은 필요치 않습니다. 갈등과 갈라치기로 연명하는 정권은 필요치 않습니다. 갇히지 말아야 할 양심들을 가두고, 심판을

받아야 할 부패한 권력자들이 확보하는 세상, 기필코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얼굴만 바뀔 뿐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소놀이같은 정권교체만으로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본의 편에 선 윤석열 정권 역시 사람의 피와 자연의 눈물을 기름 삼아 돌아가는 자본주의라는 거대기계의 부속품이자 임시관리자, 하수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열사께서 영원한 노동자 주인 되는 세상은 정권교체만으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위한, 돈에 미친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을 향한 걸음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안녕하겠습니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김찬휘 | 녹색당 대표

저들은 “건설노조 간부가 말리지 않고 바라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릉경찰서는 말합니다. “분신 방조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저들은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법과학연구원의 감정 결과, 모두 같은 필체임이 밝혀졌습니다.

저들은 “전임비를 갈취하는 건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 사장들은 “노조의 강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날조이고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저들에게는 노조 자체가 불법입니다.

노동자의 단결 자체가 불법입니다.

무법천지의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이 불법입니다.

“죽지 않고 일하고, 힘든 일 하면서 천대 받지 않고” 살기 위해 몸 부림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본과 권력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저들이 ‘불법’이라 딱지 붙인 모든 것들은

우리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양회동 열사의 분신 앞에서,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동지여 그대가 보낸 오늘 하루가
어제 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
동지여 그대가 보낸 오늘 하루가
내가 그토록 투쟁하고 싶었던 내일”

‘열사’가 살지 못한 오늘,
우리는 열사를 뜻을 잊지 않고 ‘전사’의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도 열사의 뜻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조사

장옥기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으로 흘리는 땀의 정직함을 믿고 순수하게 살아
온 한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국민들의 살 집과 모든 사회기반 시설을 창조하
면서도 늘 노가다라 천대받던 건설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
다 믿었던 노동운동가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
다.

한 여인의 남편이었고, 쌍둥이 아들, 딸의 자상한 아버지였던 양
회동 열사를 우리는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 보냅니다.

그러나, 양회동 열사가 산화하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유가족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전국의 노동, 시민, 사회, 정당에서 양회동 열사의 유언을 받들어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결의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열사가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양회동 열사를 기억하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마
음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상회동 추모의 글

아빠께

안녕? 아빠. 나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딸이야
너무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살고 가끔씩만 봐서 그런가
아직도 그냥 떨어져서 사는 것 같고 실감이 잘 안 나
그래도 가끔씩 집에 있다 보면 아빠랑 지냈던 순간들이 기억
나고, 그립고, 보고 싶기도 해

아빠가 “여행가자”, “나중에 섬 가서 살자” 약속했던 말들이 기
억나

근데 나중에 여행가고, 섬에 가면 아빠는 그 자리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

또 아빠가 외식하자고 했던 것도 거절하고 내가 아빠랑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항상 내가 거절한 것 같아서 후회도 돼

늘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표현하지 않아도 계속 다가와서 안아주고 사랑한
다는 말 해줘서 고마워

늘 커서 효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빠에게 잘한 점
이 없는 것 같아서 후회도 돼

늘 바라보며 웃으면서 자는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나중에 만나면 그때처럼 나 안으면서 웃어줘.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

- 사랑하는 딸

* * *

안녕 아빠? 나 아빠 아들이야

그동안 너무 무관심해서 미안해
아빠는 항상 나랑 재밌게 지내고 싶어했는데
나는 그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 차갑게 대했어
우리 집에서 아빠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없었
던 것 같아
아빠는 정말 마음 좋고, 착한 아빠였어
가족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한테는 아빠가 후순위였던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너무 후회돼. 그동안 몰랐던 아빠의 빈자리도 알게 됐
어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고, 가치있는 일인지 이
제 깨달은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야 돼
내가 완벽히 채우는 것은 어렵겠지만, 노력해볼게

그리고 나 요즘 아빠 꿈을 조금씩 꾸고 있어
6월 초에 캠핑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아빠가 우리 앞에 와서
나랑 누나 머리를 쓰다듬어줬어.
그날 이후, 4번 정도 아빠 꿈을 꿔는데 나머지는 아빠가 들어
오기 전에 깨더라고. 다른 꿈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아빠 꿈은
잊혀지지 않아.

아빠 근데 난 이제 몇 년 뒤에 사회에 나가 일을 해야 돼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걱정이 되긴 해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니깐 나도 열심히 살게.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두렵기도 하고.

아빠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게. 나중에 꼭 만나자
미안했고 고마웠어. 사랑해.

- 아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추모의 글

이양섭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본부장

양회동 열사를 보내며 ...

5월1일, 거짓말 같은 비보를 듣고 사실이 아니길 바랬었는데...

토끼 같은 자식과 아내를 두고 어찌 그런 결정을 하셨소.

억울하고 힘에 부치면 말이라도 전해주시지 어찌 그런 행동을 하셨소.

세상의 그릇됨은 다 노동자의 몫이고 책임 또한 우리들의 몫이라 나랏일하는 놈들은 말 하는데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으니 가슴을 베인 것처럼 쓰라리고 아프오.

동지를 떠나보냄이 끝이 아니라 숨쉬는 우리에게겐 새로운 도전이고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하오.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머릿속엔 열사의 정신이. ...
마음 속엔 열사의 염원이. ...

동지가 심어 놓은 항쟁의 씨앗은 우리들의 뜨거운 피의 온기로 언젠간 싹이 튼고 꽃이 피지 않겠소.

그때 찾아와 주시오. 나비가 되어 벌이 되어 찾아 오시오.

이제 눈 감고 영면 하시오. 동지의 억울함과 유지는 우리들의 숙제로 남았으니 숨쉬는 우리를 믿고 편히 눈 감으시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하오.
열악한 노동자를 다시 보고 있소.

자갈길 가시밭길 가리지 않고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을 기억해주오.

언젠가 내 피가 굳어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 동지를 만나러
가거든 손 한번 잡아주오.

그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겠소.

영원한 노동자 양회동
사랑하오 그리고 미안하오.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소주 한잔 합시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장례위원



유족

양희선, 김선희

고문

강정채 구연철 권영길 권오창 권오현 김병오 김삼열 김상근
 김영만 김영승 김영식 김영옥 김준기 나창순 남궁현 남상현
 노수희 단병호 명진 문정현 문국주 박덕신 박상은 박석무
 박순자 박순희 박중기 박찬석 박희성 배종렬 배다지 백석근 서경원 소순관 송기인
 신낙균 신인령 신흥범 안재웅 양연수 양원진 양길승 염무웅 염성태 이갑용 이규재
 이만열 이용대 이용식 이우재 이부영 이창복 이천재 임현영 장임원 정현찬 조성우
 천영세 청화 최기식 한기명 한상균 함세웅 황금수

상임장례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공동장례위원장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희숙, 노동당 나도원 이종희, 녹색당 김찬휘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몽,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박형선, 실천불교승가회 한우,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김시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

시민사회단체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김평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4.16연대 박승렬,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송진영 이정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장현일,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김준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임상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진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순덕, 빈민해방실천연대 이경민, 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 이장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김혜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태형,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참여연대 한상희,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형태, 통일광장 권낙기,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김윤자 양이현경,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한국청년연대 김식,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공동장례위원장

노동 강규혁 김선혁 김원대 김윤희 김은형 김일규 김재남
김진억 김태영 나순자 류시태 문용민 박두영 박준석 박종렬
박희은 신한섭 양동규 양성영 윤부식 윤장혁 윤창현 윤택근
이길우 이양수 이인화 이재진 이종욱 이찬배 이태의 임기환 장진희 전호일 전희영 조
형래 최정명 한성규 현정희

상임집행위원장

전종덕(민주노총) 허근영(건설노조) 안지중(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문미정(기본소득당)
강성희(진보당)

호상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대변인

한상진, 김준태

조직위원회

장현술, 한경준, 전병선

치산위원회

이창훈, 강호경

의전위원회

안혜영, 김덕진, 이윤재, 송주현

총무위원회

배예리, 이은정, 민소현, 김영만

운구위원회

한현우, 이명구

홍보위원회

장우식, 김성우, 이준혁

기획·문예위원회

박성환, 김지호, 박선봉, 박주동, 주재영, 전경진, 이성호

■ 장례위원

노동

민주노동 사무총국 강경태 강상철 강영구 고미경 고희진 곽이경 곽찬호 권두섭 김문찬 김미형 김민석 김선경 김선경 김선민 김성혁 김성혁 김성훈 김세익 김세희 김수경 김수현 김유진 김윤아 김은기 김은기 김진량 김태형 김태훈 김하경 김한울 김형남 노희준 류미경 류승민 문일평 박민 박상미 박영민 박은정 박정옥 박주아 박주영 박지아 박현숙 박효선 봉혜영 서희원 성성봉 손지승 송승현 신선아 신소연 안진 엄미경 연미림 우문숙 유안나 윤미연 윤혜정 윤희애 이소영 이승우 이윤경 이윤미 이윤지 이의진 이정훈 이정희 이정희 이창근 이한진 이현정 임소정 장병권 장석우 장제현 정경윤 정경은 정기호 정기호 정재현 조경석 조대원 조연주 조용현 조은제 조진영 최명선 최명선 최정우 하태승 한상진 한상진 허성희 허현무 홍석환 홍순광 황혁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김양곤 김영림 김은규 송주현 이영록 이철우

전국건설노동조합 강규환 강근연 강덕구 강두용 강성원 강성형 강순구 강재구 강진석 강창규 강태영 강태웅 강한수 강현근 강호경 고경남 고광록 고범석 고봉민 고은성 고재욱 공명구 공문배 공병열 곽순필 곽영복 곽종현 구재우 구제균 권동근 권순갑 권영일 길정규 김경민 김경섭 김경택 김경한 김경호 김경훈 김광귀 김교성 김규우 김기수 김기중 김기현 김기형 김기홍 김덕민 김덕수 김덕영 김도암 김도현 김동아 김만수 김명철 김문종 김미정 김병구 김사중 김산 김산화 김상보 김상윤 김상희 김선옥 김선우 김선형 김성권 김성록 김성수 김성우 김수환 김순철 김순호 김승환 김시노 김연수 김연호 김영권 김영근 김영도 김영림 김영만 김영모 김영진 김영철 김영태 김용석 김용수 김용식 김용준 김용철 김용철 김용호 김우석 김우현 김원 김윤영 김윤인 김은희 김장수 김재식 김재홍 김점빈 김정균 김정배 김정안 김정열 김정우 김정한 김정호 김제곤 김종락 김종석 김종태 김종호 김종환 김준태 김준근 김진 김진수 김진윤 김찬건 김창곤 김창년 김창식 김철수 김철호 김태석 김태완 김태용 김태형 김태호 김태환 김학열 김해식 김형욱 김형종 김형준 김호영 김호중 김홍섭 김홍수 김희근 김희성 김희영 김희태 나대석 나동수 나진섭 남건석 남경우 남궁일성 남기방 남무영 남중희 남철민 남희 노남기 노보현 노정철 라승한 라승한 류건호 류경동 마길남 마재운 맹종안 명용기 명우순 명종식 명종식 모대성 문광천 문병일 문병주 문여송 문열 문이남 문재식 문태곤 민소현 민종원 박경기 박경수 박경식 박군복 박금열 박기철 박기훈 박대규 박대우 박만수 박만연 박만우 박문화 박미성 박민웅 박상우 박상욱 박석규 박석용 박성동 박성수 박성순 박세중 박수용 박순진 박신구 박양수 박영모 박용섭 박원종 박윤기 박인제 박재곤 박재순 박재완 박재학 박정일 박정환 박종필 박종호 박종희 박종수 박진수 박창규 박천우 박철민 박태봉 박통일로 박한수 박해성 박행두 박현상 박현근 박현수 박현찬 박형순 박홍규 박홍조 방건환 방종완 배성태 배예리 배현의 백남규 백원기 백원기 변문수 변용암 변홍균 봉광주 봉명석 서경덕 서도연 서승택 서영현 서일경 서재현 서태웅 서한석 서효석 석원희 석현수 설정두 소영호 송석모 송성주 송영걸 송진호 송찬흠 송학섭 신경배 신당식 신동춘 신성득 신승석 신영하 신윤석 신은안 신정훈 신진선 신태균 신하송 신희선 신희식 심재광 심현민 심현민 안상덕 안상민 안영묵 안익봉 안효

창 양복승 양용관 양용만 양찬호 양태조 엄인수 엄봉윤 예성일 오세용 오재영 오정용 오제도
 오창호 오현준 왕윤정 우식훈 원경환 원한별 유금종 유동복 유명선 유명필 유병국 유병국 유
 병권 유병선 유병우 유병천 유봉규 유상오 유영중 유일남 유정구 유태오 육명수 윤경석 윤병
 학 윤상민 윤상춘 윤상희 윤승호 윤원호 윤창근 윤현우 윤희태 이강훈 이계홍 이공석 이관천
 이광민 이광용 이근모 이근성 이기명 이기영 이기윤 이길무 이남익 이대근 이대식 이대훈 이
 덕영 이덕재 이명구 이문수 이범용 이병안 이병윤 이병일 이병주 이병진 이복성 이상암 이상
 옥 이상현 이상호 이성수 이성철 이성춘 이성호 이성희 이세곤 이세연 이세연 이세훈 이송환
 이수야 이승규 이승균 이승현 이승혁 이시근 이양섭 이양섭 이영록 이영철 이용식 이용철 이
 윤재 이은정 이은준 이장규 이장식 이재만 이재빈 이재웅 이점동 이정열 이정희 이조운 이종
 대 이종봉 이주경 이주선 이준상 이준혁 이준희 이지원 이창배 이춘열 이현두 이형규 이혜영
 이호반 이훈규 이훈규 이희수 이희영 임권철 임대빈 임대성 임대훈 임동기 임삼락 임상열 임
 석순 임성재 임영웅 임용호 임이태 임종석 임종오 임홍래 장덕봉 장상두 장영학 장원호 장원
 호 장현수 장형창 전득진 전병선 전병용 전용기 전우상 전일성 전재균 전재희 전종만 전호양
 전희봉 정귀종 정기석 정다훈 정민주 정민호 정민호 정병혁 정삼균 정상욱 정순복 정승곤 정
 양상 정양욱 정연덕 정연진 정연출 정오 정운성 정일면 정일용 정재근 정재덕 정재선 정종길
 정종두 정종춘 정준엽 정지철 정진우 정태훈 정환명 정흥관 조관행 조기선 조기주 조병도 조
 상현 조승원 조승호 조승호 조승희 조유환 조유환 조은석 조재원 조재현 조진관 조진관 조학
 삼 주석만 주순극 주우열 지수민 차형우 천강 천극연 최광근 최광근 최문순 최병두 최병수 최
 복선 최선규 최성길 최승현 최용운 최우진 최은섭 최재휘 최정락 최정복 최정식 최종섭 최진
 호 최창학 최재룡 최철웅 최철호 최태수 최태영 최태현 최형인 최희석 탁재호 태석기 하동현
 하만호 하상설 한병문 한봉수 한수복 한승정 한영주 한원만 한인섭 한장보 한종탁 허근영 허
 동완 현성식 홍비룡 홍석길 홍성남 홍성록 홍원표 홍인기 홍재정 황성용 황옥룡 황익일 황정
 원 황종연

전국건설기업노조 강대진 곽승환 권충호 금경호 김광배 김규현 김대수 류지훈 박명호 박영찬
 박종음 박주수 배정석 서준태 신소연 신진열 심상철 안형진 양수민 양유미 예창해 이돈욱 이
 명철 이장원 이지훈 이진우 임항석 임희동 장양섭 조경한 조용성 최성호 최용준 표연수 한광
 수 한재원 함세종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가동영 강귀원 강미화 강병관 강연석 고병춘 고현상 고희승 권영철 김계
 임 김근엽 김기주 김기홍 김민성 김봉철 김부성 김석기 김석원 김영수 김영식 김용준 김인한
 김정순 김정한 김종근 김종배 김종주 김준수 김진원 김창식 김해욱 김현관 김현수 김호중 문
 상호 박미영 박민정 박수명 박윤주 박정현 박찬구 박춘우 백영일 서영태 손지훈 송득호 송흥
 재 신동훈 신완철 심경택 양길호 여진탁 오기철 오주원 우태용 유춘호 유현서 윤민욱 이경근
 이경진 이광주 이명훈 이민희 이부권 이성남 이승열 이시웅 이연우 이재성 이정엽 이정찬 이
 주안 이종하 이천호 이철호 이현주 임근섭 임용대 임채용 임희성 장양선 장창환 전학숙 정병
 철 정용선 정원준 정인호 조경숙 조정한 조흥영 차래철 천병철 최병진 최승욱 최영철 최현 탁
 성일 한창근 허정래 현기운 현성기 홍명기 황용희 황종진

공공운수노조 강철 강동배 강정남 강필수 고석근 공성식 권오석 김현 김건형 김경화 김광석
 김기훈 김민재 김민주 김봉임 김상열 김상진 김석우 김선화 김성택 김영숙 김영애 김영정 김

영춘 김준범 김창수 김철중 김태균 김태련 김태용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하진 김현수 김현
기 김호경 김홍락 김흥수 나도철 나인진 남대식 남상철 남성화 노상규 리화수 명순필 문도선
박찬 박광호 박대성 박범홍 박상길 박영흠 박종진 박주혁 박지영 박진국 박진국 박학모 박해
철 박훈주 배동산 변희영 서동훈 서상원 서영남 석희원 손근호 손동신 송상원 송상표 송영주
신흥범 심규덕 안명자 안용권 안재영 오정심 오현근 오현일 왕복근 우병규 원우석 윤기륜 윤
남용 윤정일 윤종인 윤해석 이강노 이남규 이남진 이봉주 이상재 이서광 이석범 이승철 이운
성 이윤희 이장우 이재강 이정욱 이종석 이종열 이종우 이준형 이종원 이진형 이창석 이태환
이형섭 이향춘 이해종 이해중 이호상 이홍성 임상훈 임상희 임한채 장성기 장욱진 전광재 전
현학 전희상 정명순 정용재 정운교 정운교 정찬무 정홍근 정홍근 제용순 조득용 조순옥 주미
순 진숙자 차재만 차재만 최남규 최도성 최명호 최상덕 최상수 최연택 최영일 최용관 최정아
하진수 한대식 현정희 홍종한 황선재

교수노조 김명환 김영인 김제남 김철홍 김형진 박성원 박성현 송주명 원상철 위대현 유정 이
경준 이윤임 이종우 전용숙

금속노조 강가별 강경무 강경우 강길태 강동선 강동인 강미지 강병기 강봉수 강성진 강우중
강종욱 강지현 강필선 강현규 강현욱 강호수 고현승 고낙천 고미경 고봉산 고은아 곽민 곽명
섭 곽형재 구자겸 구자균 권오환 권혁규 권계의 권봉재 권순구 권영철 권풍년 권현구 김남현
김부만 김성수 김용근 김정규 김준일 김훈 김갑열 김경학 김고삼 김국배 김기호 김남호 김대
건 김도현 김동성 김동춘 김동하 김동훈 김두용 김두형 김만조 김명섭 김명호 김무석 김미옥
김민근 김민기 김민기 김민기 김민우 김민철 김민철 김범진 김병균 김병조 김병진 김병학 김
상섭 김상우 김상태 김상호 김석진 김석환 김선규 김선진 김선형 김성민 김성범 김성완 김성
용 김성학 김성현 김성황 김수현 김양근 김연욱 김영목 김영배 김영삼 김영선 김영성 김영욱
김영종 김영진 김영화 김용민 김용석 김용성 김용우 김원겸 김원해 김유길 김유진 김유철 김
이호 김장식 김재우 김재이 김재홍 김정구 김정수 김정원 김정전 김정태 김정한 김정훈 김중
대 김종운 김종주 김주영 김주환 김준오 김지수 김지해 김지훈 김진록 김진숙 김진순 김진택
김진혁 김창우 김철운 김태균 김태식 김태영 김태용 김태을 김태홍 김태훈 김태훈 김평수 김
필수 김학구 김학정 김한기 김현봉 김현이 김현철 김현호 김형수 김형진 김호성 김호영 김홍
국 김홍태 김환철 김후산 김희성 김희수 김희진 나기원 나우진 나희수 남경우 남상국 남상한
남승규 남태현 문동진 문승기 문승현 문영섭 문정대 문종길 문종섭 문철상 민경민 민효준 박
상근 박상호 박경선 박경수 박경태 박광수 박광연 박광일 박근서 박금배 박동진 박병호 박상
만 박상훈 박상훈 박선수 박성민 박성수 박성욱 박성철 박영욱 박영태 박영희 박용선 박용주
박유종 박윤희 박을숙 박재우 박재현 박정수 박정애 박정일 박종우 박종출 박주문 박준용 박
지원 박지웅 박진만 박진현 박차현 박찬일 박춘성 박태인 박태현 박토근 박현준 박형춘 박효
석 박효진 박훈 박희찬 반채준 방상현 방성준 배미순 배복한 배수룡 배수빈 배윤자 배주성 배
준익 백기봉 백승 백승진 백정화 변상민 변성수 변진영 북한식 서민승 서영우 서경태 서다윗
서동찬 석창수 설정석 성세경 성시정 성재식 소명심 손덕현 손동구 손범국 손순형 손한락 손
한진 손현식 송기호 송순단 송영찬 송종섭 송주성 송진범 송하경 송현진 신교일 신규철 신동
욱 신동원 신명균 신미숙 신민서 신승훈 신시연 신용현 신우철 심 재 문 심대인 심성훈 심진호
심현용 심형섭 안진환 안기백 안문규 안석태 안용우 안원호 안인오 안재수 안재홍 안중현 안
지훈 안진수 안현호 양대석 양두강 양승열 양원관 양현주 양혜철 엄교수 엄기훈 엄대근 엄미

야 엄병철 엄태응 엄주민 오승탁 오동길 오병섭 오봉원 오인수 오재호 오제원 오준금 오흔도
 옥승필 우환섭 우경원 우기돌 우정완 원용훈 유강희 유상기 유승종 유명민 유재룡 유준 유지
 훈 유휴창 윤대성 윤효진 윤광섭 윤기선 윤명한 윤민례 윤상한 윤성만 윤연일 윤영섭 윤용웅
 윤장혁 윤재일 윤정민 윤종현 윤현권 이상명 이정배 이종두 이종철 이주우 이건용 이경수 이
 경이 이규선 이규철 이근실 이기환 이동건 이동식 이동열 이동인 이명일 이명호 이민천 이병
 용 이병훈 이부성 이상구 이상민 이상승 이상열 이상원 이상태 이상태 이상필 이상훈 이석주
 이선임 이성배 이성엽 이성우 이성원 이수삼 이수옥 이승용 이신호 이영석 이영수 이영호 이
 예운 이용석 이용수 이용훈 이원재 이유진 이은선 이재식 이재영 이재운 이재원 이재찬 이재
 현 이정협 이정훈 이제현 이종근 이종훈 이주홍 이준식 이중배 이중희 이진욱 이차호 이찬우
 이창구 이창락 이창석 이창욱 이창혁 이창환 이태경 이태진 이태현 이해동 이해용 이현욱 이
 현섭 이현승 이형도 이형준 이흥우 이화운 이희열 임부규 임시진 임경하 임길택 임도형 임명
 택 임성우 임송라 임영진 임영철 임종성 임종환 임주희 임진현 임채영 임충규 임치완 임태일
 장제한 장백 장세욱 장수일 장영석 장영수 장진호 전광균 전용운 전종일 전진우 전천수 전충
 배 정경진 정관채 정광식 정근식 정대웅 정도영 정미선 정병준 정병천 정상교 정상한 정석 정
 석민 정석원 정성훈 정오영 정용우 정우성 정윤능 정일철 정재연 정재황 정종만 정종성 정진
 우 정진홍 정진희 정찬성 정철민 정철호 정대중 정혜금 정호근 정홍형 정효원 조경영 조남덕
 조민제 조봉구 조성민 조성윤 조영호 조윤영 조장열 조장희 조재봉 조재승 조정훈 조준호 조
 하영 조현근 조현철 조현태 주태성 주해호 지광환 지정순 진상규 차현호 차상운 차상호 차석
 호 천세춘 천용성 최현환 최기철 최대성 최명우 최민수 최병연 최병호 최봉기 최삼철 최상규
 최상천 최석봉 최성빈 최순영 최영일 최용규 최용복 최용석 최용섭 최용현 최원균 최윤미 최
 인석 최재봉 최정수 최정현 최준규 최중성 최지영 최진영 최현록 최현모 최현진 추한진 표민
 중 하여철 한건희 한광민 한규환 한상식 한상훈 한순철 한영선 한치정 함은숙 함재규 허 원 허
 대환 허영호 허준구 현종환 홍국표 홍재준 홍지욱 홍진성 홍찬우 홍창덕 홍창의 홍현성 황대
 웅 황덕기 황병희 황보곤 황성욱 황수진 황수훈 황승연 황양규 황우찬 황의택 황이라 황정철
 황주철 황준규 황채석 황형수 황훈재

대학노조 김근주 김동욱 김민수 김바울 김영민 김영준 김준기 김지수 마충희 문지수 박경규
 박영란 배일용 송한규 송호현 윤구 이장균 이재동 이재설 임현석 조태형 조현미 조홍률 최기
 우 최순필 최정식 허덕희 허상욱 허연

민주여성노조 박종오 김경애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강민수 강성현 강수경 고충성 고평주 교회석 구수령 구옥희 구인석 구자
 연 권도훈 권병관 권용수 권준석 김가희 김경수 김관옥 김금숙 김기홍 김기홍 김동휘 김두영
 김만석 김명숙 김명옥 김미경 김미경 김미영 김민철 김변철 김변철 김병규 김병준 김병철 김
 봉근 김상태 김석순 김선기 김선아 김선희 김성규 김성규 김성우 김성화 김수진 김수혜 김순
 옥 김영민 김영수 김영주 김용운 김윤심 김이영 김이희 김인자 김일용 김재원 김재훈 김정대
 김정제 김정현 김정한 김종수 김종철 김주영 김중식 김지환 김진오 김진호 김철수 김춘열 김
 학균 김현일 김현중 김형수 김혜영 김효중 남정수 노경희 노희나 류병택 류영규 류영준 류정
 연 류지훈 마은실 문관식 문순신 문여영 문영심 문화현 문화현 민의홍 박계일 박대규 박만철
 박명복 박문순 박문종 박미옥 박보경 박삼옥 박상준 박성수 박성철 박세영 박순복 박완규 박

완규 박우선 박은실 박자은 박장규 박정윤 박정직 박주성 박지성 박지환 박진우 박진홍 박철
 박현수 박현우 박효성 박희영 배상미 배재환 배현주 백금자 백수현 백완인 백일주 백현철 변
 건록 변성환 봉인 서기정 서종필 서홍원 선동진 손경희 손종미 손종욱 송경아 송성대 송정윤
 송정화 신도철 신애진 신용훈 신정화 안산옥 안소행 안윤호 양미자 양병석 양재훈 양정 엄인
 자 오종익 오해주 왕정준 원이숙 유란순 유명희 유재은 유창근 유하진 윤강욱 윤두완 윤석현
 윤은경 윤종호 윤태경 윤화자 이경옥 이경진 이경태 이금희 이대희 이동섭 이미영 이미정 이
 민우 이병휘 이봉근 이상윤 이선영 이수남 이수연 이영주 이영훈 이완오 이은영 이을재 이일
 웅 이천우 이점옥 이정민 이정범 이종만 이종묵 이종수 이주남 이주용 이태경 이태수 이현숙
 이형진 임민형 임보은 임정심 임종남 임홍균 장동호 장영일 장우찬 장은주 장희정 전광자 전
 미선 전순자 전철구 정기채 정의석 정의현 정인탁 정인탁 정점판 정진주 정진희 정태화 조남
 민 조미선 조상현 조용곤 조용곤 조용병 주연령 주인수 주정인 주정훈 진선두 차홍곤 천연옥
 천재홍 천홍균 최경석 최기호 최동식 최봉식 최성아 최성진 최소영 최옥연 최용열 최윤혜 최
 은희 최인섭 최향중 최효선 하재성 하치원 한명숙 한성영 한세현 한영숙 한태정 함은정 허신
 국 홍기영 홍성일 홍수영 홍창희 황상철 황왕택 황인권

보건의료노조 강연배 광경선 김경규 김정호 김진경 김혜경 나영명 박노봉 박민숙 박정원 방기
 원 백소영 송금희 신선미 신용석 양승준 원종인 윤석종 윤영규 윤은정 이근웅 이선희 이인숙
 이주호 임아연 장원석 정연숙 정재범 정재수 조혜숙 최종진 최희선

비정규교수노조 권오근 권용두 김상희 김재경 김진균 남중섭 박정일 배성인 송홍섭 이상룡 전
 유진 정재호 조덕연 최승기

사무금융노조 강정권 김경수 김종우 김동진 김상수 김선도 김영재 김영현 김준영 김기원 김철
 식 김태갑 김희정 나재호 문철현 백창용 서은정 손치복 오관석 오희정 윤정훈 이기철 이성원
 이승현 이창욱 임동근 정윤각 정종우 제해문 조경봉 최정환 최찬영

서비스연맹 강선영 강우철 강은희 강현욱 고은영 고을선 권순보 금두호 김광창 김광호 김도영
 김명호 김문성 김미숙 김민주 김성익 김수정 김순옥 김용석 김정훈 김종민 김종선 김주태 김
 지운 김지현 김현종 나경덕 노기현 노우정 노우정 류덕경 민혜경 박경수 박근수 박미향 박재
 경 박재경 박종기 백승재 백승재 백지연 서대성 시광진 신준익 우문영 원호준 유남중 유영두
 유정민 유종철 이규창 이도호 이미선 이복규 이선규 이수연 이수연 이엄지 이영남 이영주 이
 종성 이춘우 이현숙 이현철 이현철 이현철 이희종 임병배 임창경 임창도 전수찬 전진수 정경
 희 정민정 정민정 정윤경 정재호 조은선 주재현 지연옥 지연옥 진경호 진혜순 최대근 최민정
 최진선 최진선 하인주 홍창의 홍현덕 황영미 황재인 황호순

언론노조 강성원 고경호 고한석 김 인 김광원 김두식 김수진 김승주 김중호 김지원 김진성 김
 현대 나석채 문영진 박유준 박재욱 박혜연 방진선 배승현 송지연 안명희 여동기 염정열 유한
 구 이교선 이상대 이은용 이재원 이현경 이호찬 전대식 전지영 정태천 정형택 조성식 조성은
 천대성 최남춘 최장원 최정기 최철규 한승우 한윤조

전교조 강창수 김도형 김성보 김현주 김현희 노경석 문병모 박영환 박현옥 손지은 송옥진 신

왕식 안봉한 이상미 임정택 장영주 전승혁 정진강 지승엽 진수영 현경윤

정보경제연맹 김영경 김용원 김용태 김윤진 김태선 김형곤 김형찬 문성훈 민성준 박동민 박준현 배준경 신하원 안종훈 원재식 이훈재 표광용 하재현 황윤정

화섬식품노조 가광현 강도수 김성호 김정열 김태열 김학진 박영준 서진상 신귀섭 이영섭 임영국 장욱진 장종수 정해영 현재순

서울본부 강우철 강정남 강호원 구자현 김경애 김경월 김도현 김상열 김성보 김순철 김창년 김형수 김호정 나석채 박선봉 박성열 박진국 서다윗 손근호 윤구 이경옥 이현미 이혜중 임동근 정운교 조오현 최정기 최희선

인천본부 강동배 김기동 김준오 김충무 박대성 박종희 박찬미 신창균 안봉한 오순옥 원종인 이수연 이장균 이형진 장호영 추인호 황윤정

경기본부 고지은 김동욱 김선정 김성규 김철수 김형삼 박경실 박신영 박영준 박윤희 박정호 백소영 변문수 윤민례 이규선 이상림 이준형 정식화 정진강 채수근 최남수 최승덕 최진선 한규협 황수영

충북본부 김규원 김기연 김순자 김용직 김원만 백형록 신혁진 신희영 이주용 이진희 이태규 전영봉 조윤희

대전본부 김경순 김민수 김영현 김운섭 김현주 신문수 안성기 어상규 이봉근 차민선 최홍용

세종충남본부 김규현 정만영 박승환

전북본부 김기자 김대선 김춘원 동헌 류귀자 박정원 백승재 서영우 송욱진 안현석 양성영 유준 이창석 임영웅 장종수 조혜진 최영식 최재춘 한승우

광주본부 고승구 김민기 김성호 김현주 김혜경 맹종안 박선화 박성진 박재욱 백형준 서기정 양현주 이성원 이형섭 임길택 장애란 전주연 정영일 진혜순 최권중

전남본부 강신원 김성현 김성호 김정한 김찬목 김혜경 맹종안 문화현 박근서 선진래 신왕식 양현주 윤인자 이성원 이송환 이해준 이형섭 장양선 주훈석 최관식 최현대 황형수 황호순

대구본부 김영희 김윤순 박유식 윤기륜 이원준 이정아 임성무 정경희 정은정 채봉석 최일영

경북본부 이용기 최해술 이순옥 김혜인 배태선 손두현 엄영애 이재욱 임순광 최기석 최인혁

부산본부 김경은 김미경 김점빈 김정완 김희철 노귀영 노기현 리화수 문미철 변종철 서영남 서영호 석현수 송영호 송천석 심진호 안준용 양미자 오종훈 윤영규 이재동 이희동 임정택 정

홍형 조석제 주선락 최민정 최성욱 최승환 최현오

울산본부 김계화 김윤미 박기옥 임송라 전명환

경남본부 강선영 김병훈 김은정 김종하 박미란 백성덕 신호식 안혜린 엄상진 유경종 유왕용
이은영 정명진 최희태

강원본부 김영균 김영희 김주훈 방태준 송인경 조한경 최승기 함준식

제주본부 고경호 김명호 김병철 김홍철 부장원 송시우 안용남 양연준 양영수 양윤란 오성권

개인

강경식 강남규 강민지 강병일 강서진 강성범 강윤희 강은두 강주희 강춘석 강희정 강희주 고
동철 고무모임 고사리 고수봉 고영균 고정일 고준혁 고진오 고희숙 곽서영 구분기 구산하 구
산하 구서윤 구용서 구용서 구재보 구정철 권말선 권영국 권일우 권지은 권진덕 권택홍 기동
서 김경희 김광태 김금희 김기홍 김다빈 김다현 김대진 김덕진 김동수 김동식 김래곤 김목환
김미나 김미애 김미연 김미희 김민경 김민지 이해자 유주영 김병관 김병욱 김병혁 김보람 김
상균 김상모 김상욱 김상현 김서영 김선우 김선철 김선호 김성미 김성진 김소영 김수나 김수
정 김승하 김영미 김영준 김용원 김용찬 김우 김유리 김유진 김윤삼 김윤영 김윤희 김은기 김
은진 김은화 김의철 김재술 김정호 김정희 김정희원 김종분 김종선 김종환 김주는 김준겸 김
준우 김준희 김준희 김지선 김지현 김지형 김지홍 김진경 김진현 김창수 김창우 김충민 김치
환 김태훈 김필순 김하나 김하나 김현 김현석 김현아 김형균 김형기 김형주 김홍선 김환영 김
희창 꼬비 나원준 노동자탄압과기본권강탈에항거하는사회복무요원 노병섭 노우빈 동분선 류
건호 류후남 목정윤 문인아 문희현 박경완 박금영 박기수 박대용 박명희 박상미 박상은 박상
현 박성수 박성준 박순남 박순선 박승렬 박완희 박재현 박재현 박정환 박종갑 박종수 박종진
박준성 박준성 박태수 박현수 박현주 박희대 배외숙 배인영 배현의 백남운 백미순 백승민 백
은지 변동현 변은혜 변혜숙 서광순 서동렬 서영섭 서예진 서울대병원간호사 서원근 서재현 서
태성 서향수 서현호 서효정 선지현 선춘자 성경남 손익찬 손호만 송경옥 송보화 송영경 송영
관 송인경 송홍석 신민시 신은섭 신현경 신희식 신희원 심재훈 안규백 안상민 안종호 양은미
엄인수 엄태영 여명순 여승규 여연심 여영국 오남준 오민애 오수민 오승택 오영미 오윤희 오
황금 우성구 위대현 유승준 유영민 유영재 유영중 유윤주 유찬봉 윤기환 윤상희 윤석호 윤성
림 윤영섭 윤영숙 윤영안 윤영철 윤용숙 윤정희 윤한용 윤해경 은우근 이강숙 이강웅 이강훈
이경서 이경숙 이공석 이관형 이관형 이귀연 이남기 이대열 이도화 이도흙 이도엽 이미현 이
병국 이병수 이병연 이사람 이삼형 이상배 이상수 이서윤 이선에 이선화 이설 이성우 이성재
이성현 이성훈 이세영 이수민 이수정 이순무 이순이 이승진 이승현 이옥선 이용곡 이용관 이
용준 이원희 이윤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은희 이장희 이재백 이정아 이제경 이종란
이종석 이종울 이주현 이주화 이주희 이준환 이지인 이태성 이학인 이해원 이혁수 이현아 이
현애 이현우 이해선 이훈규 임경호 임대훈 임성래 임유하세하 임종석 임지연 임한숙 장동연
장선화 장소라 장소영 장시성 장예정 장종남 장종남 장지철 전기룡 전다운 전미주 전병덕 전
옥희 전종혁 전지윤 전진한 정경석 정동규 정선영 정성철 정영섭 정영주 정원영 정윤희 정은
주 정익화 정종두 정지혜 정진우 정창조 정철 정환윤 정효길 제재영 조규석 조동주 조미혜 조
석준 조세현 조승래 조아라 조연민 조옥형 조원하 조은정 조이희 조재윤 조정환 조지영 조창
익 조한 조한경 조한길 조혜정 조희주 주혜빈 지효근 진수영 진창원 차용택 채효정 천성진 천
웅소 최동식 최민혁 최세나 최순옥 최은아 최재근 최정화 최진규 최창우(Amcor) 최해찬 최휘
주 최희영 최희태 한규희 한기영 한덕균 한민구 한봉희 한아영 한장훈 허남웅 허미영 현경윤
현필화 현혜숙 홍기헌혜를린다 홍봉기 홍원주 홍태용 황경숙 황경의 황관중 황규돈 황순식 황
재영 황정원 황진서 희망교회

정당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민기 김민석 김성환김성주 김수흥 김원이 김영배 김영진 김용민 김주영 김한정 김희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신동근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의원영 어기구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윤후덕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조정식 진선미 천준호 최강욱 최인호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황운하 **정의당** 강은미 김민정 김영진 김옥임 김용신 김창인 류세아 류호정 문영미 문정은 박대용 박명기 박소정 박종현 방두봉 배진교 심상정 엄정애 여영국 예윤해 오현숙 윤정기 이기중 이병진 이병진 이성우 이재용 이혁재 이현정 이형린 임명희 장형진 장혜영 정재민 한민정 한상각 한정애 **기본소득당** 강은실 구부회 권다희 권수경 권은희 금민 김민정 김숙진 김영길 김재훈 김한별 김현탁 노서영 류창표 목화균 문경원 문예린 문지영 문현철 박기홍 박대선 박선하 박유호 박은영 박종식 박찬종 박혜선 서마리아 서태성 석우재 설목 송희용 신원호 신지혜 양다혜 양부현 양승연 양지혜 오준호 윤김진서 윤원정 이민우 이우경 이원희 이준 이진아 이해정 장은경 전나경 조성윤 조은우 주귀숙 차용택 최미희 최승현 한인정 현은진 홍순영 홍종민 홍지수 황법량 황순원 **진보당** 강광석 강광철 강미란 강병찬 강상규 강승철 강우철 강진희 강한솔 고혜경 공영근 국강현 국일선 권민경 권순정 권오대 권용식 권익경 기획진 김관영 김기선 김기중 김기호 김남영 김도현 김동석 김동욱 김동우 김명숙 김명신 김명호 김미라 김미숙 김미화 김민규 김배곤 김병규 김병규 김봉용 김석용 김선재 김선정 김설훈 김성기 김성은 김소연 김승철 김 식 김양지 김양현 김영목 김영미 김영미 김영옥 김영태 김영혜 김영호 김용연 김윤덕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익영 김인숙 김재진 김종현 김종훈 김주업 김주영 김준형 김지숙 김지애 김지은 김진만 김진석 김진숙 김진솔 김진주 김진주 김철영 김철휘 김태진 김태홍 김해정 김행연 김현래 김호경 김홍열 김희정 남궁석 남기방 남기천 남수정 남희정 노경택 노민현 노우정 노정현 문군호 문장혁 문홍관 박귀선 박무웅 박문욱 박미경 박미영 박봉열 박선근 박수경 박쌍순 박오숙 박옥분 박은영 박재균 박정민 박정애 박종곤 박종익 박지선 박지하 박철모 박태균 박현우 박현정 박현희 박형대 박혜명 박화자 백성균 백성호 백승재 서수형 성정림 손수진 손영인 손진영 손해연 손혜진 송아름 송영우 송영주 송정현 신건수 신성득 신승룡 신옥희 신용준 신은진 신정숙 신창현 심문희 안소희 안수용 안재범 안주용 안준용 안지섭 양동욱 양미경 양미자 양승훈 양정화 양태조 어용수 오미화 오수희 오은미 오인환 오준석 용혜량 우준하 원영부 유영갑 유창근 유하영 유현주 윤경선 윤민호 윤서영 윤영미 윤제형 윤차원 윤한섭 은동철 이경민 이경민 이경자 이광우 이광춘 이남형 이대동 이대종 이대진 이동진 이명주 이미선 이미영 이병용 이상람 이상윤 이상현 이선영 이성수 이승무 이승우 이승원 이승현 이시내 이영곤 이영록 이영춘 이윤진 이은영 이은정 이정석 이정확 이종대 이종문 이천기 이현정 이호성 이호진 이희신 임상민 임선재 임은지 임채점 임현용 장귀선 장귀선 장두섭 장미진 장석춘 장애란 장영심 장영심 장지창 장지화 장진숙 전권희 전민선 전세용 전주연 전지현 전진희 전택기 정대원 정세경 정승찬 정양욱 정지영 정태홍 정하준 정한구 정한석 정현우 정현화 정현희 정혜경 정희성 조남애 조병훈 조영혜 조윤숙 조은구 조은선 조장래 조정훈 주선락 지한규 진혜순 차정화 채유빈 천병삼 천성인 최광용 최나영 최미희 최봉수 최용현 최재희 최종해 최진선 한만승

한영수 한현기 한현호 현은정 현지환 홍기호 홍성규 홍세영 홍은숙 홍희진 황광민 황순규 황
왕택 황중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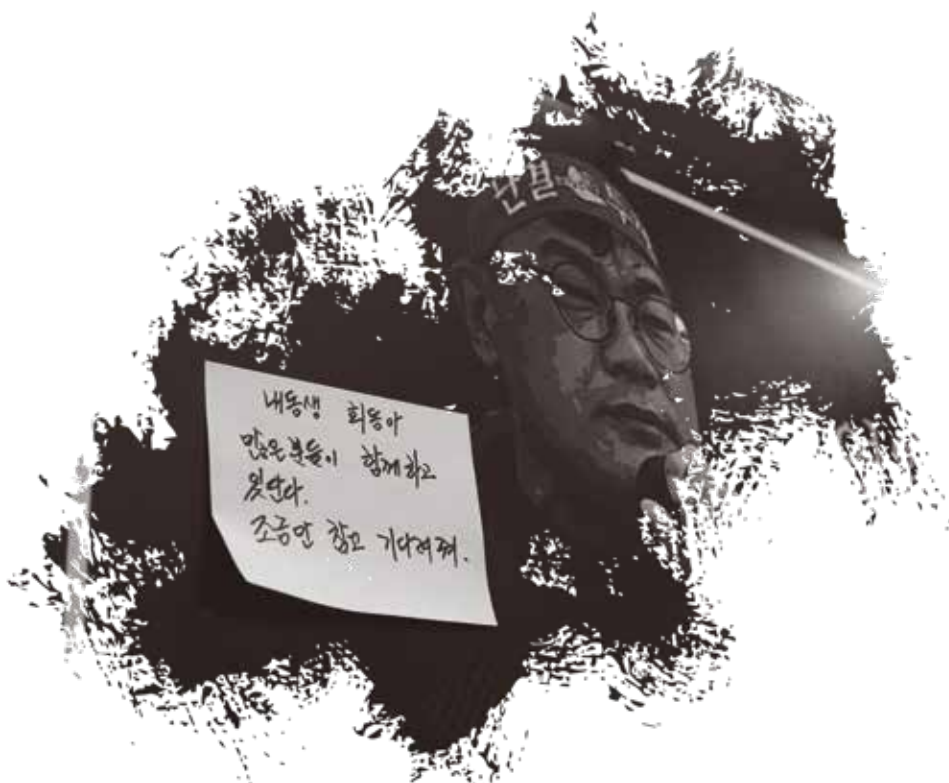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빅팀스 조순미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 구속노동자회 노기호
배미영 배소영 조영건 홍순창 나무야학 김선영 노동사회교육원 양솔규 노회찬재단경남 김유
미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대전지역 강신철 권영준 권의석 기영석 김광식 김대근 김명근 김
상호 김성남 김원진 김재섭 김창근 김채운 남누리 남재영 류은덕 문성호 박경 박규용 박양진
박익선 박정희 박지현 박철웅 박해룡 박희인 성광진 송희란 신문수 신윤실 신현정 심유리 양
대형 양덕춘 양명남 양병찬 양해림 오광영 오근엽 오민성 오세준 오완근 원용철 원용호 유태
영 이광진 이규봉 이대식 이병구 이병구 이병채 이소령 이수정 이순복 이순옥 이영복 이왕기
이용주 이은주 이준범 이찬현 이택훈 이한주 임도훈 임병언 임재근 장수찬 장승용 장승현 전
남식 정세은 정춘교 조부활 조준영 주정봉 진종현 진현수 최영민 최정우 최정욱 최현규 편경
열 하연경 한선영 한재현 한창민 허창수 홍경표 황인식 마트산업노동조합 울산본부 정현희 김
해정 원예농협하노지회 한창수 흙플러스지부 울산남구지회 손상희 울산동구지회 김영옥 울
산중구지회 도경민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김병인 선재원 이상룡 정세은
진종현 채형복 천정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김영옥 김을수 류정식 박근창 박기섭 윤기
하 이정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김정숙 이영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대식,
이명순, 남영란 (사)부산민예총 황종모 빈민해방실천연대 강흥택 고광진 곽미순 권용택 김기
남 김기용 김나영 김민우 김부엽 김서용 김성록 김소연 김순심 김영상 김영진 김영표 김우성
김재영 김종근 김진학 김철영 김태완 김판호 김학영 김흥현 남경남 노수희 박강남 박순권 박
영순 배행국 서일선 선금옥 소순관 심규리 심옥자 안정순 양연수 오재용 우종숙 위희수 유태
준 윤진태 윤현주 이경민 이규호 이기철 이상규 이인만 이종기 이진용 전재수 정구준 정길조
정동섭 정병찬 조상태 조정남 조항아 천계성 최동재 최상규 한기남 한상범 황수근 사월혁명회
김승균 박홍섭 이문상 이용위 이윤 전덕용 정혜열 한찬욱 생명평화교회 최한국 소통과혁신연
구소 정성희 양심수후원회 김태임 노혁 이종문 정숙향 정훈철 언론비상시국회의 강성남 고광
현 권영준 엄주웅 오태규 이부영 이완기 이창호 이필재 전진우 정승욱 조병래 조형주 최광범
현상윤 여성시국회의 강선미 구광숙 김애영 김정희 김종분 김준용 배외숙 백혜숙 윤청자 이경
은 이경희 이권명희 이기연 이서영 임은빈 임태숙 장순향 최정순 홍영희 황주영 (사)울산민족
예술인총연합 김교학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석현 강성철 강순중 강창한 고제형 고창건 구재근
권기현 권영식 권오현 금시면 길병문 김구일 김기형 김덕수 김덕수 김동운 김동현 김만호 김
명수 김명수 김병수 김복근 김상범 김선호 김성 김영돈 김영재 김옥겸 김용규 김용빈 김윤천
김재길 김종열 김주원 김주환 김준범 김진열 김진욱 김창남 김태현 김현석 김형중 남궁단 남
주성 노기환 노병남 류병원 류승하 류정화 목창환 문홍인 박경우 박귀순 박기수 박동규 박상
규 박상봉 박시진 박종태 박형백 배무환 배병석 배형택 백덕기 서윤발 신기령 신종원 신현호
양오길 양정석 오동식 오용식 위재호 유경수 유관형 유재석 유조봉 윤동영 윤용목 윤일권 윤
필섭 윤희경 이갑성 이근혁 이혁 이광수 이광원 이규서 이근업 이대종 이무진 이병철 이상돈
이석희 이영준 이용희 이운영 이재동 이정구 이종섭 이종협 이종환 이준경 이진구 이현식 임

동성 임흥락 장동진 장성기 장성두 장영태 장호봉 재해식 정철 정도화 정문우 정봉호 정상길
 정영이 정운채 정종민 정충식 정학철 정효진 조갑찬 조광남 조규정 조병옥 조용주 주영태 채
 호진 최재호 최준수 최창옥 최한열 최현석 황양택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강릉원주대 강
 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기대(수원)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북대 경성대 경일대 경희대 경희대(국
 제)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광주대 국민대 군산대 단국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
 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마산대 명지대 명지대(용인)
 목원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원대 성균관
 대 숙명여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원광대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이화
 여대 인제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창원대 청주대
 충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침례교신학대 한국외대 한국외대(용인) 한남대 한림대 한성대 한신
 대 한양대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 재경대경지역민동 재경원광대민동 재경충북민주향우회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강선순 김종분 김혜수 박명선 박종부 박현희 백옥심 유영숙 이석주 전
 재숙 정정원 조인식 최종순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정금채 김훈래 이경은 심우기 남재영 이용
 길 방응승 김승원 김균식 권서각(권석창) 최종태 김진열 전진우 이용근 이영섭 김민곤 장영달
 이래경 김민웅 김하범 김성환 김찬 김서진 신형식 정해랑 이영국 정종성 김영진 엄주웅 황선
 건 정성희 황순식 안영민 정세일 최정순 정연진 백경진 김영주 목사 권오혁 이창희 최연 현상
 윤 김호 김희웅 박준영 박성준 최연희 최범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강영숙 고송자 구점숙 권
 태옥 김원숙 김정열 문영미 박미정 박정숙 선애진 손외순 송미옥 신지연 양옥희 용옥천 이춘
 선 이현숙 정영이 최윤희 추미숙 한경례 한영미 **전농부산경남연맹** 강순중 강창한 김복근 김성
 김용규 김종열 김진열 김진욱 류정화 배병석 양정석 윤동영 이현식 장호봉 정운채 제해식 조
 갑찬 조병옥 최현석 **전라북도노동권익센터** 정광수 **전여농당진시여농** 곽양이 **전여농부여군여
 성농민회** 양윤희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김미혜 서유진 임주은 유대현 김현석 **조국통일범민족
 연합남측본부** 김동순 김재명 모성용 이성우 이태형 조대회 조영주 **참여연대** 이지현 신미지 장
 동엽 이계정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김시몬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김덕진 장수
 아 장예정 좌세준 **추모연대** 고광성 김갑수 김기수 김병오 김병태 김순 김영옥 김원봉 김학규
 남상헌 박봉주 박상은 박인기 박중기 백남수 오창규 유재석 이덕우 이영기 이영기 이현주 이
 형숙 임성종 임정환 정훈록 한동건 **통일광장** 김해섭 안학섭 양희철 임방규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창호 **한국도시농업협동조합** 황영선 **한국민예총** 강육천 손병휘 이정석 **한국진보연대** 김병혁
 김지혜 류경완 문경식 박민주 손정목 심규협 안지중 오하나 장우식 주제준 최은아 한경준 한
 총목

단체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미래를준비하는노동사회교육원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4.9통일평화재단 강릉원주대학교민주동문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
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
상 고무모임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촛불행동 구속노동자후원회 권리찾기
유니온 기장생명선교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해방을위
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 노들장애인야학 노래패맥박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
체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평
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세종충남지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세종충남지회목원대학교분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세종충남지회충남대학교분회 밀양겨레하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
지킴이반올림 법무법인여는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노란들판 사단법인평화의
길 사단법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성남여성
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 이경숙선생추모
사업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천여성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
위원회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
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규홍동
지정신계승사업회 전남대학교제42대총학생회일동 전농강원도연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경북
도연맹 전농광주전남연맹 전농부산경남연맹 전농전북도연맹 전농제주도연맹 전농충남도연맹
전농충북도연맹 전태일재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
민족연합남측본부경남연합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진보대학생강원넷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
생넷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경남지부경남대넷지회 진보대학생넷경상대지회장 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대전충정지부 진보대학생넷동국넷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 진
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동국대지회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동지넷 진보대학생넷성공회대
학교지회 진보대학생넷제주넷 진보대학생넷진주교대지회 진보대학생넷창원대지회 진보대학
생넷한양대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촛불전진 촛불행동 촛불혁명완
성연대 충남부들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풀무원의령 플랫폼C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지엠지
부부당해고자모임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희망교회



내동생 회동아
많은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투쟁!

- 양회동 열사의 유서 중에서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